

“호남권 초광역 AX 혁신벨트 구축 시급”

광주·전남·전북 연계… 단일 AI 산업 생태계 구상
미래차 모빌리티·RE100 등 6대 핵심분야 전략 제시

호남권의 인공지능 벤처체인 완성을 위한 초광역 AX(인공지능 전환) 혁신 벨트를 구축하고, 지역 내 단일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연구원은 지난 24일 ‘광주정책포커스’ 제22호 ‘호남권 초광역 AX 혁신 벨트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5국 3특(5대 초광역 경제권·3대 특별자치시·도)’ 정책이 지역 주도의 자립형 혁신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만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이 선제적으로 첨단산업 중심의 통합

경제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수립한 ‘인공지능 행동계획(2025년 12월)’에서 제시한 ‘지역 산업정책의 초광역 단위 연계·융합’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호남권 초광역 AI 협력 구상을 담았다.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의 핵심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이다.

보고서가 제안한 ‘호남권 초광역 AX 혁신벨트(안)’는 지역에 분산된 AI 인프

라를 하나의 벤처체인으로 연결하는 것 이 핵심이다. 광주의 AI 집적단지, 전남의 RE100 에너지와 거대 장비산업, 전북의 피지컬 AI 및 특화 실증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연구·설증·사업화가 선순환하는 완결형 인공지능 벤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미래차 모빌리티, 호남 RE 100 에너지 그린, 바이오·헬스케어, K-푸드·농생명 AI, 스마트 중공업·자율제조, 문화콘텐츠 등 6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AX 혁신벨트를 조성해 지역 주력 산

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행 전략으로는 ‘호남 AI 초광역 추진단’과 공동 사업 기금 조성을 통한 전략적 거버넌스 구축, 앱케이션 참여 기업 성장 프로그램과 선도적 구매체계 도입, 캠퍼스 프리 방식의 AI 인재 양성, 호남권 AI 공동 기술·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대정부 건의 과제로는 호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국가 AI 산업 제2축인 ‘국가 전략 메가타운’으로 지정하고, ‘호남 AI 메가시티’ 단일 국책 사업 승인과 국제 협

력기구 유치를 통해 글로벌 AI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승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5국 3특’ 정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호남권은 AI를 매개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며 “AX 혁신벨트 구축은 흩어진 호남권 AI 벤처체인을 연결해 거버넌스와 산업·기술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지역 자립형 경제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동광주새마을금고, 어려운 이웃에 온기 전파
동광주새마을금고는 최근 차상위 계층과 우선돌봄 대상자,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돋기 위해 ‘사랑의 종도리쌀’(백미 20kg·415kg·총 8.3t)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동광주새마을금고 임직원과 회원들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며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동광주새마을금고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000가마(140t)의 쌀을 지역사회에 기탁했다.

전남도, 첨단 농업 이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식품소재·미생물 전략 논의

전남도가 지역 농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최근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 전남농업기술원, 순천시·나주시·곡성군·장흥군 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구 담당과장, 목포대·순천대·전남대 교수진, 전남바이오진흥원과 전남연구원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 그린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 분야별 추진 전략을 비롯해 기반 인프라 구축, 도내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산업 육성 전략 전반을 논의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후방 산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관계기관 협의회



전남도는 최근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반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이다. 전남에서는 숙면에 도움을 주는

전남도는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나주는 식품소재, 장흥은 천연물, 순천과 곡성은 미생물을 핵심 축으로 삼아 시군과 협력하고, 농업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인은 표준화된 스마트팜과 계약재 배 확대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고 소득을 높이며, 기업은 안정적 원료 공급망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기업 성장성 개선…수익·안정성은 악화

한은 광주전남본부 경영분석…전남은 실적 개선 흐름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기업들의 경영 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광주의 성장성이 다소 회복됐지만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이 악화된 반면 전남은 성장세는 둔화됐으나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4년 광주·전남지역 기업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비금융 영리법인의 매출액 증가율은 -1.3%를 기록했다. 전년(-2.7%)보다는 나아졌으나 전국 평균(3.7%)에는 크게 못 미쳤다.

완성된 제품은 홍차 추출물에 레몬과 자몽의 상큼한 풍미를 더해 물이나 탄산수에 간편하게 희석해 마실 수 있는 액상스틱 형태로 구현됐다. 휴대성과 섭취 편의성을 높여 일상 속 건강 관리를 음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앞으로 소비자 기호도 조사와 시장성 평가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보완하고, 도내 기공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해 기능성 식품 산업으로의 확산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행란 원장은 “이번 홍차 액상스틱 개발은 전남산 홍차의 기능성과 기공기술을 결합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구현한 사례”라며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전남산 홍차의 산업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년(40.7%)보다 1.7%p 감소했다.

전남지역 기업들은 성장성이 둔화됐지만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기업의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은 4.6%로 전년(9.7%)보다 5.2%p 낮았고, 총자산 증가율도 4.1%로 전년(7.3%) 대비 3.2%p 하락했다. 전국 평균(3.7%)을 웃돌았지만 석유화학 경기 부진 영향으로 성장세는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5%로 전년(-1.6%)보다 5.1%p 상승했고,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도 2.3%로 전년(-1.0%) 대비 3.3%p 개선됐다.

이현규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전남 소비심리 회복세 지속

12월 CCSI 112.9…연말 들어 상승세는 주춤

올해 초 급락했던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가 하반기 들어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말로 접어들며 상승세는 다소 주춤했던 모습이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지수(CCSI)는 112.9로 전월보다 1.8p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109.9)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광주·전남 소비자지수는 지난해

12·3 계절 선후 79.4까지 급락한 이후 올해 들어 1월 83.4, 2월 84.5, 3월 87.1, 4월 85.9 등 장기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5월 94.7로 반등한 데 이어 6월 101.5, 7월 110.1, 8월 113.8까지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후에도 9월 110.5, 10월 111.3을 기록했으며, 11월에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

장 전망을 올드운 영향으로 올해 최고치인 114.7까지 올라섰다.

현재 생활형편지수는 94. 생활형편지수는 102로 각각 전월보다 1p씩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지수(103), 소비자지출전망지수(113), 물가수준전망지수(134)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현재 경기판단지수는 전월보다 6p 낮은 96을 기록했고, 후향경기전망지수도 5p 하락한 107로 접계됐다.

취업기회전망지수(97)와 임금수준전망지수(121) 역시 각각 2p씩 떨어졌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3p 상승했고, 금리전망지수는 99로 4p 올랐다.

이현규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고용청, 나주 공공기관 대상 개정 노조법 2·3조 대응 설명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한국전력 본사에서 나주 소재 공공기관 24개소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지난 9월 공포,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변화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중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제한이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 현행 교섭장구단일화 절차 과정 중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하는 게 골자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신협, 고령층 금융 접근성 지원
온누리상품권 지류 판매 ‘1위’

신협중앙회는 2025년 온누리상품권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연간 온누리 상품권(지류형) 취급 금융기관 15곳 가운데 판매금액 1위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전통시장 이용자와 고령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현장에서 꾸준히 지원해 온 신협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신협은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전환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25년 설 명절을 앞두고 체크카드 온누리상품권 앱 등록 이벤트(1월 22일 ~2월 2일)를 자체적으로 시행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각종 프로모션도 전국 조합 칭구와 고객 접점에서 적극 안내·홍보했다.

카드·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이 10%인 반면, 지류형 상품권의 할인율은 5%에 그치는 상황에서도 신협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의숙하지 않은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이 상품권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 조합 칭구를 중심으로 앱 사용법 안내와 맞춤형 설명을 병행해 왔다. 이 같은 현장 중심의 지원은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현규 기자 photo25@gwangnam.co.kr